

일본 수산청 유통구조개혁거점어항정비계획에 의한 3개 지구 승인

생산효율화 및 품질고도화를 위해 2008년도부터 스타트

일 본 수산청은 애히메현(愛媛縣) 아와타하마(八幡浜)지구,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카츠우라(勝浦)지구, 후쿠오카현(福岡縣) 하카타(博多)지구 등 3지구에 대해서 유통구조개혁거점어항정비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후 각 지구에서 정비가 실시되는데 생산·유통의 효율화, 품질·위생관리의 고도화가 도모되면서 유통구조개혁이 추진된다. 공공사업으로서 승인되었으므로 보조율이 1/2에 이른다.

아와타하마지구에서는 아와타어항(3종)을 중심으로 2008년도부터 2013년에 걸쳐서 현, 아와타하마시, JF아와타하마어협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하역소 및 안벽 등을 정비한다. 청정해수도입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동시에 제빙과 냉장시설을 강화하여 수산물 선도보전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하여 고도의 위생관리를 실현, 양질의 수산물 제공을 도모한다. 또한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들일수 있는 소프트사업과도 연계하여 견학통로나 관광기능을 겸비한 시장의 설립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 국내에서 가다랑어의 우수한 양육지로 알려진 와카야마현의 카츠우라어항(3종)에서는 고도위생관리대응형 하역소와 양육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가다랑어, 청새치를 대상으로 한「키슈(紀州)카츠우라산 가다랑어」라는 브랜드화로 산지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현이 사업주체로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인공기반, 조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또한 동 지역은 동남해·남해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우려되므로 긴급 대피장소로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정비가 이루어진다.

특정 제3종 하카타어항은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후쿠오카시가 하역소 등을 정비한다. 동 어항은 산지시장과 소비시장의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양륙에서 출하까지 일련의 출하작업을 고도의 품질·위생관리체제로 구축한다. 일본 전국 상위 양륙역을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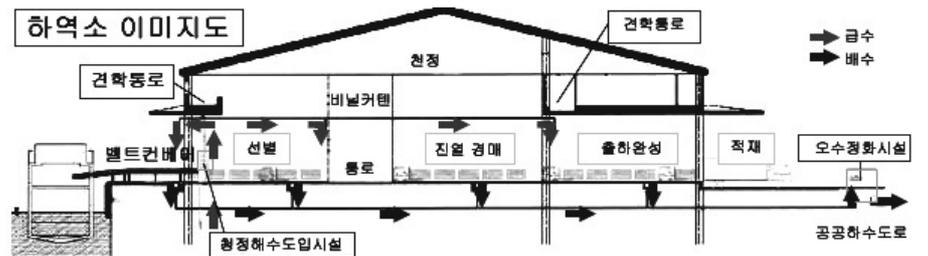
하고 있는 동 지구에서 안전하고 안심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전국 브랜드로써 지명도를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계획은 이미 고치현(高知縣) 타노우

라(田ノ浦)지구, 아오모리현(靑森縣) 하치노헤(八戸)지구, 이와테현(岩手縣) 오호후나토(大船渡)지구가 승인되어 이번의 3개 지구를 합하여 6개 지구가 승인되었다.



▲ 애히메현(愛媛縣) 아와타하마(八幡浜)지구



▲ 아와타하마(八幡浜)지구 하역소 이미지도

제22차 해외어촌어항어장조사단 파견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9박 10일간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제22차 해외어촌어항어장 시찰을 실시한다.

이번 시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시·도, 시·군의 어촌어항 관계자를 비롯하여 일선 수협과 시공·용역업체, 수산유통가공식품업체, 기타 어촌어항어장에 관심이 있는 20~30명의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파견되는 제22차 해외어촌어항어장조사단은 우리의 어촌어항과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고베시 인근 타루미어항과 마루야마어항, 마루야마바다낚시공원과 오사카시내의 도매시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후 유럽으로 이동하여 영국의 브라이튼항과 독일의 함부르크항, 네덜란드의 쉬베니건항과 흑반출란

드항 등을 둘러보게 된다. 특히 이번 시찰은 현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받아 체계적인 시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선진어촌어항어장 시찰은 선진국의 어촌어항어장 및 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현황과 시책 및 정비와 환경실태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어촌어항어장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협회주관 하에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어촌어항어장관련 공무원, 시공·용역업체 및 회원, 수협조합 임직원, 수산유통가공식품업체, 기타 어촌어항어장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가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 www.fipa.or.kr 참조).